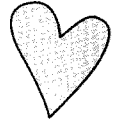




지역사랑! 고객사랑! 실천하는 봉사! 무학가족자원봉사단

지역민의 수많은 관심과 애증이 있었기에 지금의 무학이 있다는 생각아래,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몸소 실천하는 무학가족은 내실 있는 다양한 지역공헌활동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일회성이 아닌 무학가족의 손길이 진정 필요한 곳을 찾아 전국에 있는 전 직원이 매월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에서는 그 활동 상황이 귀감이 되어 타 많은 회사들이 벤치마킹하고, 매스컴에서도 보도되었다. 이처럼 꾸준한 활동들은 무학 그룹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최재호 회장의 사회활동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경남사회복지협의회 회장직을 10여년간 하였으며, 현재 까지 경남자원봉사센터 이사장직도 4년째 해 오고 있다.

그룹의 오너부터 솔선수범하여 전직원이 혼연일체로 사회공헌 활동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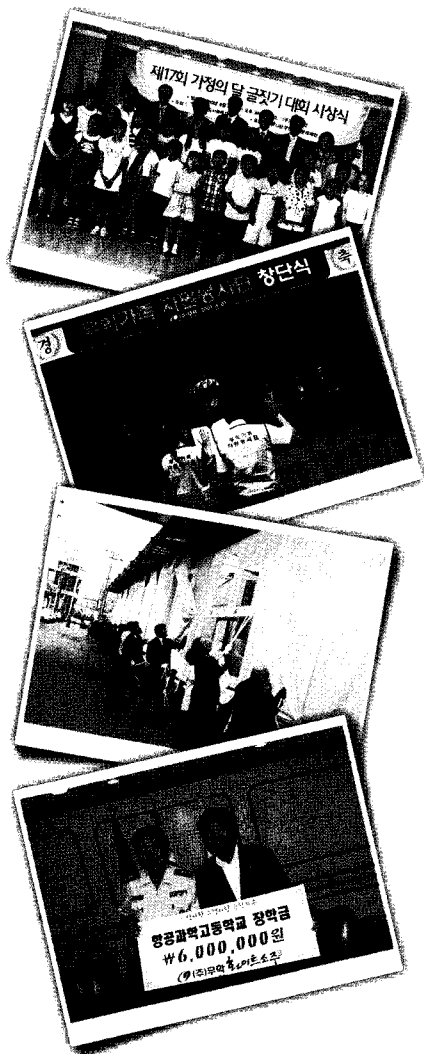
무학가족의 구체적 사회공헌활동을 들여다 보면

첫째, (재)무학교육문화재단입니다.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을 목적으로 경남지역 최초로 설립된 (재)무학교육문화재단은 장학사업, 연구지원, 문화활동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1985년 설립 후 현재 까지 경남과 울산광역시에 중, 고교생 중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성적우수자, 환경미화원 자녀를 대상으로 매년 무학가족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항공과학기술 고등학교, 체육특기생 등)를 대상으로 기타 특별 장학금을 편성하여 수시로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배움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국가발전에 교량이 될 인재양성에 이바지 하고 있다. 25년간 지금까지 6,066명에게 총 23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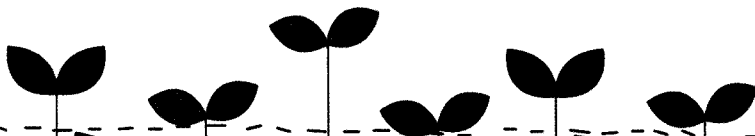
또한, 경남대학교 및 창원대학교, 인제대학교, 남해대학 등의 지역주요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우리 지역의 우수인재 유출을 막고 인재육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의 활동과 함께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올해 재단에서는 저소득 청소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시행함으로써, 소외계층의 학생들이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자신의 꿈을 찾고 희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생을 선발하여 일회성이 아닌 대학 졸업 시까지 지속적으로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의 성공한 기업 임직원 및 사회복지전문가로 구성된 멘토와 청소년(멘티)을 연결해주는 멘토링 사업과 정기적인 간담회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무학가족자원봉사단 활동입니다.

(주)무학은 '지역사랑 고객사랑'의 슬로건을 내걸고 매년 복지시설 및 불우이웃 시설을 방문하여 자원봉사 활동과 청소년을 위한 장학 사업 등 사회문화 활동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모든 활동을 체계화하고 조직



화할 필요성에 의해 2007년 6월 무학가족 자원봉사단을 창단하게 되었다.

최재호 회장을 단장으로 하여 무학의 전 사업부 임직원 및 가족들이 참여하는 봉사단은 매월 1회 지역대별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며 2010년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또한, '따사모', '사랑의 밥차', '사랑의 쌀 나누기', '아름다운 가게', '사랑의 밥차' 등 봉사단체에 대한 후원과 매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 등 적극적인 나눔 경영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최재호 회장은 2007년에 '경남자원봉사센터' 이사장직을 맡아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과 사회봉사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 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사회복지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활동에 대하여 지역에서는 성공적인 경영인 이외에 경남지역의 대표적인 사회복지를 주도하는 젊은 CEO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셋째, 문화체육 지원사업입니다.

무학 청소년 음악회, 연주회, 오페라 등 경남지역 공연과 3.15마라톤대회 전국체전, 경상남도도민체전 등 체육행사에 지원하여 지역민과 어울어지는 다양한 활동도 전개하였다.

또한, 경남FC 5억원 후원, 환경을림픽인 람사르총회에 기업서포터스, 마산가고파국화축제, 진해군항제 스폰서십 활동과 해외 학생동포 위령사업, 1사1촌 자매결연으로 도농상생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더불어 민관군(특수전사령부·39사단·공군교육사령부·진해 해군기지 사령부 등) 자매결연을 통해 위문품 전달 및 장병 위로 활동 등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일원으로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한국람사르재단과 한국조류협회와 함께한 고성군 독수리먹이주기 및 주남저수지 인공새둥지 달기 행사를 통해 새와 사람이 함께 공존을 모색하고 생명사랑운동을 실천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학은 지역사랑을 실천하는 기업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지역민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나아가 국가 발전에 기여하며 작은 봉사 활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가족을 돕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봉사 활동을 통하여 상호 존중과 협동의 정신을 배우며,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는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고 항상 어려운 곳에 먼저 찾아가 지역민의 모범이 되도록, 이를 행동강령으로 삼아 실천에 앞장설 것이다.

